

# 김녕항 건설공사 현장

## - 눈 부신 햇살의 아침 -

홍 근 범 / 정한중합건설(주) 토목주임  
안전관리자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현장으로의 출근길, 차창 밖으로 들어도는 시원한 바람.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현장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위험요소 및 대책 등을 머리속에 그려본다.

우리 현장은 제주도 동북쪽 행정 구역상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에 위치한 제1종 어항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근해에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항을 이용하는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서방파제 축조 680m, 동방파제 축조 170m, 물양장 310m, 선양장 30m, 호안 70m 시설 계획 중 '95년까지 서방파제 축조 558m를 시설한 데 이어 금회 '96년 서방파제 축조(T. T. P 피복 사석 경사제) 78m를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작업중인 주요 공종으로는 T.T.P(TETRAPOD) 40톤급, 50톤급 제작, 외항측 및 선단부 사석 투하 및 속 고르기(1.0㎡급)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건설현장마다 각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특히 바다에서의 공사는 풍향, 풍속, 파고, 물때, 장비 및 인력 관리 등 작업 추진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많고, 대부분의 공종이 해상에서 이루어져 태풍 래습시 안전사고와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 수행이 가장 적기인 요즘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요인을 보면 시공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및 사명감 결여, 관행적이며 형식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장비 비치 미흡 및 담당자 지정 소홀, 공기 촉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공사비 절감을 위한 작업시간 연장, 제규정 미숙지 및 규정 불이행 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확보 및 시공 장비의 적정성 검토,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 건설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현장도 무재해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무재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존중 이념에 바탕을 두어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다함께 선취하지는 운동이며 재해 ZERO를 궁극의 목표로 직장에

서의 위협이나 문제점을 전원 참가로 해결하고 안전 보건을 선취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건강하고 재해없는 쾌적한 직장을 조성하는 안전 실천 운동이다.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의 기본 이념 중 우리 현장은 무의 원칙(직장내 어떤 잠재 위험요인도 사전에 파악하고 찾아내어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자는 것으로 무재해·무질병을 궁극의 목표로 최고 경영자에서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참여 노력하는 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현장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기상 악화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현장 내에서는 자체 안전점검, 안전교육, 특히 각 공종별로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그마한 위험

요인이라도 발견시 즉시 보고, 조치토록 하고 있다.

무재해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산재 보상금 및 간접 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생산성 저하도 막을 수 있으므로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율적 문제 해결 운동으로서 생산, 품질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명랑하고 참가적이며 창조적인 직장 풍토가 만들어지므로 노사간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노사 신뢰가 두터워진다.

'92년도 제1종 어항 승격 후 햇수로 5년째 시공중인 김녕항 건설공사는 그동안 단 한차례 재해도 없는 무재해 현장으로서 완공 계획 예정 000인 '98년도까지도 무재해로 나가는 현장이 될 것을 다짐하며 우리 전직원과 현장 근로자들은 오늘도 "무재해로 나가자" "좋아!"라고 외쳐 본다.

